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

중국을 큰 뱀에 비교하곤 한다. 큰 뱀은 개구리나 작은 물고기도 먹지만 토끼, 쥐 등도 먹어치운다. 중국은 영토확장을 위해 내몽골도 먹었고, 티베트도 점령했다. 오늘 날 중국은 전설적인 삼황오제(三皇五帝)로부터 송조(宋朝), 원조(元朝), 명조(明朝), 청조(淸朝), 중화인민공화국을 거쳐 오면서 많은 전쟁과 부침을 거쳐 현재의 국토를 유지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고, 한 때는 우리나라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 아래서 2천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중국의 영향력이나 통제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은 청일전쟁(淸日戰爭)(1894.6~1895.4) 이후로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100여년을 우리는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일본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외세에 나라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100년의 중국의 수모가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이 존재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다만 북한에 대하여는 1950년 북한 김일성을 지원하여 한국전쟁에 함께 하였고, 오늘 날에도 북한과의 정치적,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이 이제 세계 초강국으로 등장했다. 경제력은 군사력을 동반하는 것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하여 신장 위구르 자치주를 비롯한 27개 소수민족의 역사와 영토주권을 왜곡하는 사업, 즉 서북공정을 진행 중이며,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구려사 및 한국의 고대사를 왜곡하여 한반도를 자기중심적 사고로 만드는 작업, 즉 동북공정을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다른 나라와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 남해의 남사군도 서사군도

이어도를 아십니까

지역, 중국동해의 다오위다오(鳥魚台), 일본명 센카쿠열도 를 비롯한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중국 서장남부와 서남부의 장남지역, 중국 흑룡강성 우수리강의 흥개호 호수수면 면적분쟁, 신강과 내몽골 지역의 영토 미확정지역 등 육지지역 등이다. 중국은 대국굴기(大國崛起)정책으로 스스로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영토분쟁이라는 것이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자국의 민족주의를 촉발시켜서 국가 간의 미묘한 관계까지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이어도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어도는 영토로부터 12해리까지 인정되는 영해와 달리 EEZ 내에서는 영안국선박의 자유로운 항해가 허용되기 때문에 중국항공모함이나 광공선이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석유시추, 해양조사, 사격훈련 등은 규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중국과 이어도 관련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였고, 이어도는 해면 4~5m 아래에 위치해 있어 영

토로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도 “이어도가 위치한 곳은 중국과 한국의 EEZ 중첩지역”이라며 “이어도 귀속문제는 쌍방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깨진 유리창’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미국 하버드대 교수였던 제임스 윌슨의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을 방치할 경우 행인들이 관리를 포기한 건물인 줄 알고 나머지 유리창마저 깨뜨리고 더 큰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거나 이제는 이어도도 중국이 넘나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정책이나 외교정책에서 뭔가 ‘깨어진 부분’이 외국인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저승같이 오락가락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해녀들의 노랫말처럼 이어도는 제주도 해녀들의 이상향 같은 섬이다. 우리는 영동항 외교적 실수로 이어도를 뺏겨선 안 될 것이다.

社說

조계종 스님들의 새 발걸음

3월 15~16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중진 스님 150여 명이 함께 천태·진각종을 방문했다. 종단지도자연수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방문을 통해 스님들은 단기간에 성장을 거듭하고 사회 리더로 발돋움한 이들 종단의 성장동력 등을 진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일제식에서 “이번 연수가 역사와 사회에 부응하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종단운영 시스템의 질적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방문 상대로 천태종과 진각종을 택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천태종은 사찰 운영을 재가신도가 주축이 돼 참여하고 있다. 진각종은 중앙집권체제로 그 특징이 요약된다. 줄어드는 출가자 수로 스님들의 사찰 관리 부담이 늘고 있는 조계종으로

서는 신도들이 사찰을 관리하는 천태종 시스템에 관심이 갈 만하다. 특히, 교구본사와 분담금 조정 갈등을 빚거나, 내중·계과 등으로 권력이 분화돼 역량 결집을 저해 받는 조계종으로서 진각종의 중앙집권체제가 매력적일지 모른다. 인류는 새로운 문물·제도를 두고 수없이 대립해 왔다. 보수와 진보로 대변되는 이 갈등이 종단지도자연수 후에 조계종 내에서 두드러지게 재현될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변화를 꾀하는 쪽이나, 전통을 고수하는 쪽이나 모두 불교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점이다. 그 점만 잊지 않으면 된다. 변화의 움직임에 변하지 않은 것도 변한 것과 진배 없다. 어쨌건 이번 종단지도자연수가 조계종의 체질 강화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자비라는 큰 그릇 활용하자

대승불교의 요체는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다. 이는 자신도 이롭게 하면서 타인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정신을 표현한 말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 일치될 때 진정한 깨달음이 성취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불교에서는 상구보리를 통해 얻어지는 깨달음만이 강조된 측면이 없지 않다. 선방수와 대단한 줄은 알아도 밭 벗고 포교현장에서 뛰는 스님이 큰스님인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방영준 성신여대 교수는 3월 15일 계간 <불교평론> 열린는 단에서 “자비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방 교수는 “깨달음에서 자비가 나오고 자비에서 깨달음이 나온다”며 상구보리는 잘난 형님이 됐고, 하화중생은 못난 동생이 된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연기(緣起)이다. 인연법으로 뜻생명이 공생한다는 것이다. 나 홀로 깨달음에 집착만 해서 이 땅이, 이 사회가 불국토도 될 수 없는 까닭이다. 대승(大乘)의 수레는 혼자 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타는 것이다. 그래서 큰 수레임을 잊지 말자. 깨달음은 수레의 공간을 넓히지만, 자비는 수레를 함께 탈 동반자를 만든다. 자비라는 큰 그릇을 자랑만 하지 말고 사용 방법을 모색하자.

사부대중 칼럼



양범수 前 불교신문 편집국장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26차 대회가 오는 6월 여수에서 개최되고 많은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한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90년도에 한국에서 열렸던 제17차 대회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이번의 대회가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다. 이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불교도들의 만남이요, 불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우의(友誼)를 다지는 잔치의 한 마당이다. 먼저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호남불교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드린다. 막대하게 소요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회를 진행하려는 의도로 준비하는 조직위의 고군분투는 90년도 대회 때 경험했던 필자로서 그 고충을 알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남불교의 의욕이 존중받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스물다섯 차례의 어느 대회보다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년 전 11월, 제25차 대회가 열리는 스리랑카를 제26차 대회를 유치하려 가는 대표

단들과 동행한 한 필자는 아릇한 기분이 들었다. 88년도 미국 LA에서 열린 16차 대회 때 제17차(90년도)대회 유치를 했을 때도 갔고 96년도 20차 대회를 열겠다고 유치 작전을 펼 때 제19차(94년도) 방콕 대회에도 참석했는데 또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리에 동석하게 되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실소를 하고 있었다. 94년 방콕 대회에서 제20차 대회를 한국이 유치를 해 대회 마지막 날 한국 대표단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분부 총재로부터 건네받은 5색 깃발(佛旗)을 흔들며 의기양양한 때와, 여러 사정으로 제20차 한국 대회를 치루지 못하고 5색 깃을 반납하러 태국 본부에 갔던 일들이 떠올라 실소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또 대회 유치를 위해 스리랑카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겹쳐 실감이 나를 웃게 하고 있었다. 아무튼 제20차 대회는 96년도에 치루지 못하고 98년도에 대만 불광산사의 도움으로 호주에서 열렸다. WFB의 근본 핵은 가운데 약자 'F' 즉 Fellowship에 있다. 동료애와 유대감, 목표와 사상을 공유하는 단체로서 교우(敎友)의 정분(淸分)이 함께하는 우의(友誼)가 WFB의 정신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20차 대회를 실패한 한국 대표단의 과거에 연연치 않고 많은 나라의 대표들의 호응 속에 또 한국에서 대회를 열게 되는 것이다.

WFB와 육환장을 든 노스님

불교의 우의 사상은 무한하다. 94년 방콕 대회에서 다음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의 여러 지부 가운데 한 단체가 주도적으로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단체가 한국의 고명한 D스님의 지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래서 그 단체는 D스님을 모시고 방콕 대회에 참석했다. 그 단체 대표들은 도착하자마자 D스님이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로비를 하느라고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대회본부는 낭담했다. 완벽하게 짜여진 대회 일정 속에 단 1초의 여유도 허락치 않았던 것이다. 3일만에 걸쳐 분부 측에 읍소했으나 빈틈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당시 청년(WFBY) 대표였기에 그 팀들을 피 마르는 로비를 직접 돕지 못했다. 보다 못해 조언을 했다. 이 대회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L박사의 시간을 얻어 보라고. D스님의 참모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음날 새벽에 도착한 L박사의 방문을 노크했고 애로사항을 털어 놓았다. 그러나 L박사의 반응은 싸늘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나를 비롯해서 몇몇이 인사를 드리러 L박사를 찾아 갔다. 인사드리고 담소를 나눈 뒤 헤어지려는데 L박사님께서 “내일 내 발표 끝날 무렵 D스님을 모시고 회의장으로 와.” 이런 경우를 ‘한 방의 브루스’라 하지 않던가.

다음날 L박사는 논문 발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핵심 부분은 모두 발표를 했고 나머지 해설은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은 한국에서 오신 고승 한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고승 한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나오시지요.” 우리들은 L박사께서 이처럼 웅송히 D스님을 등장시키실 줄은 몰랐었다. 참으로 감동적 이었다. 불교의 자애로움이 몽글하게 풍기는 순간이었다. D스님은 위풍당당하게 육환장을 한번 내리 치시고 계승을 읊고 설법을 했다. 모교수가 통역을 했는데 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리 불교만이 보여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고 참된 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폐회식에서 그동안 회의의 여러 장면들이 담긴 영상이 스크린에 비치기 시작했다. 첫머리에 육환장을 들고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D스님의 모습과 설법하는 모습이 압도했다. 대중의 화두를 단칼에 해치우는 노덕(老德)들의 번뜩임을 우리는 보았고 그래서 불교의 정신 줄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수 세계불교도우의회에서도 또 한번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줄기 기대한다.

Table with 2 columns: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and 현대불교 지사안내.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branches and a list of publications.

Advertisement for '영가천도의 중요성' (Importance of Yungachon-do) by Heonbeop-sa. Features a large calligraphic character '命' and lists 11 key points about the practice.

Advertisement for '궁합 사주명리학' (Gonghap Sasu Myeongrihak) by Heonbeop-sa. Promotes a book on astrology and compatibility with a '화제의 시간' (Hot Time) badge.

Advertisement for '사주풀이의 범수' (Sasujupui-ui Beomso) by Heonbeop-sa. Promotes a book on solving fortune-telling puzzles with a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Mystery of the Holy Book of Great Masters) badge.